

일상생활과 島嶼性 : 濟州島 文化에 대한 認知人類學的 接近*

庚 喆 仁**

I. 일상생활과 認知

일상생활은 사람들에 의해 해석된 주관적으로 의미있는 하나의 實體이다.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의 실체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相互主觀的 世界(intersubjective world)를 이룬다(Berger & Luckmann, 1966 : 19 - 22). 이렇게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의미적으로 엮어지

*本 論文은 “濟州人의 生活世界에서의 環境과 歷史의 意味”라는 제목으로 第 16回 文化人類學 全國大會(1984年 11月 2日~3日, 韓國民俗村)에 發表된 것을 수정·확대한 것이다. 筆者를 대신해서 發表해 주신 趙惠貞教授(延世大)와 발표된 論文을 검토해 주신 姜信杓教授(漢陽大)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論文을 쓰는 동안 여러가지 助言과 資料를 제공해 주신 申幸澈教授(濟州大)께 도 감사드린다.

** 濟州大學校 社會學科 專任講師

는 일상생활의 영역을 우리는 生活世界라고 부른다. 일상생활에서의 각 개인은 과거의 事件(events)이나 가능한 事件의 구조와 종류에 대한 認知的·評價的·感情的 부호를 자신이 속한 文化體系 안에서 갖는다. 이때 認知的 요소가 행위의 형태나 다른 행위와의 관계 등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認知的過程은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動機가 바탕이 된다(Schwartz, 1978 : 425).

生活世界나 認知的 구체성은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 즉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文化的 世界를 구성하고 사회적 질서를 보여주며, 활동을 계획하고 비판하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Frake, 1980 : 34)는 점에서, 對話는 認知過程研究의 일차적 자료가 된다(Dougherty & Fernandez, 1981 : 413). 따라서 認知人類學者는 原住民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사람으로 이해되며, 그들의 활동에 대한 原住民 자신들의 觀點을 중시한다(Frake, 1977 : 366).

認知人類學 혹은 民族科學(Ethnoscience)의 전통적인 연구 관심은 分類體系와 같은 知識의 구조에 대한 것이었으나, 知識의 조직적 측면(Quinn, 1982 : 775)이나 일상생활과의 관련 즉 지식이 활용되는 맥락을 연구함에 따라 그 관심은 다양하게 되었다(Dougherty & Fernandez, 1982 : 830). 知的活動이 일어나는 특정한 상황에 의해 그 지적 활동이 어떻게 조직화되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民俗分類體系나 信仰體系에 대한 분석보다는 認知(cognition)를 특정 상황에 관계된 활동으로 분석하는 民族誌가 더 유용한 것이다(Cole, 1978 : 618). 心理學者나 人類學者가 다같이 認知에 관심을 둔다고 해도, 人類學者는 경제활동이나 가족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지적활동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筆者가 약 8개월간의 제주사회에서의 생활 속에서 제주도 사람들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에 대한 관심은 그들의 生活世界를 지배하는 認知過程을 찾을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濟州

文化研究의 方法論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첫째로, Spradley(1972)가 미국 도시부랑자에 대한 연구에서 밝혔듯이, 인류학자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연구하는 都市人類學者가 처하는 조사의 어려움은 연구의 대상들이 조사자의 下位文化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자들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조사자의 문화의 틀 속에서 해석하여 말한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內部者(insider)의 觀點을 찾기 어려워, 그에 대한 방법론적 모색이 곧 구성원 자신이 그들의 경험을 구분하고, 부호화하고, 규정하는 독특한 방식을 찾아내는 民族科學의 방법이였다.

濟州文化를 韓國文化의 下位文化로 볼 때 제주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던 下位文化로서의 '陸地文化'에 대한 고려 위에서 육지사람인 나에게 제주사회의 文化를 설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對話를 民族科學的인 분석을 하여 제주문화에 대한 제주도 사람의 觀點을 찾고자 하였다. 한 文化體系 안에서의 각 개인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民族誌를 만들기 위해 각종 주변의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기(Schwartz, 1978: 433) 때문에, 몇 사람과의 일상적인 대화만으로도 그 대화가 이루어진 맥락의 특성을 분석하면 事例分析(Mitchell, 1983)을 통한 文化的 原理(cultural principle)나 文化的 知識(cultural knowledge)을 찾을 수 있다.

둘째로, 현대사회의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와 관련하여 한 사회의 문화변동을 연구함에 있어 전통적 생활세계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분석의 도구가 되는데(金漢九, 1982: 5), 이러한 생활세계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류학자에게는 文化的 氣風(ethos)으로 감지된다. 즉 人類學者들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文化的 氣風은 外部人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 사회집단 성원들간에 공통된 감정, 생각, 그리고 선악의 판단을 지배하는 전체문화의 價値體系이다. 또한 사회집단 성원 즉 內部人의 입

장에서 보았을 때는 文化氣風은 자기네들의 文化環境 속에서 外部世界를 바라보는 世界觀이 될 것이다(金漢九, 1982:15-16). 이 氣風은 그 집단성원들간에 공통되고 표준화된 氣質(temperament)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데(金漢九, 1981), 제주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外部人으로서의 내가 느낀 감정과 받은 인상을 생각할 때, 대화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氣風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제주사회도 관광과 감귤 농사로 인해 상당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데(金俊希, 1984), 이러한 상황에서 氣風研究를 통한 제주문화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또한 金漢九(1982)의 연구에서는 제주에 있어서 전통적 생활 세계를 향토문화환경 속에서의 농부들의 도덕적인 세계관으로만 설명한 것에 대해, 筆者는 제주에 있어서 과거나 현재의 생활세계를 꿰뚫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한다.

II. 島嶼環境에 대한 認知的 接近

지금까지의 濟州島에 대한 人類學的 관심은 대부분 제주문화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겠다. 濟州文化의 특징적인 면은 言語, 物質文化, 民俗分野 등에서 나타나며, 家族과 親族(崔在錫, 1979) 등의 社會構造的 측면에서도 파악되고 있다. 濟州文化의 특수한 성격은 대개 地理的인 조건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韓半島에서 멀리 떨어진 것, 한반도의 남부에 있어 기후적인 조건이 다른 것, 섬이 火山島라는 것, 그리고 크기가 지나치게 작지 않다는 등의 조건으로 특수성을 설명하는 것이다(李光奎, 1984:61). 그러나 濟州文化의 특수성을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설명할 때 두가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첫째는 島嶼文化로서 濟州文化를 보는 觀點이며(李起旭 1984), 둘째는 韓國文化의 中心地인 陸地에서 떨어져 있어 文化傳播

過程에서 나타나는 文化의 특징적인 면으로 濟州文化를 보는 것이다(李光奎, 1984).

島嶼環境은 바다에 의한 고립과 한정된 영토라는 두가지 특성을 지닌 島嶼性(insularity)으로 요약되는 데(Fosberg 1963 : 5), 이러한 두가지 구속력에 대해 島嶼民들이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生活樣式이 바로 島嶼文化인 것이다. 따라서 島嶼文化는 적응 메카니즘으로서의 文化를 강조하고 있다.

두번째의 文化傳播過程 면에서 살펴볼 때 한국의 도서지역에서 나타나는 文化를 전체 한국문화의 ‘주변문화’로 취급하여 사라져가는 傳統文化가 보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李起旭, 1984 : 3). 달리 해석하면 韓國文化의 中心地에서부터 外部에서의 충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변문화에는 外部文化(예를 들면 西歐文化)의 충격이 덜 미쳐 있다고 보는 것이다.

筆者는 濟州文化를 韓國文化의 ‘下位文化(subculture)’로 보는 觀點에서 韓國文化的인 것과 濟州文化的인 것(特殊文化)이 제주문화에 共存하고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韓國文化의 원리 속에서 또는 韓國文化가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특수문화로서의 濟州文化가 존재한다는 것이다(庾喆仁, 1984).

제주사회가 섬이라는 사실은 제주문화를 어떠한 입장에서 이해하려든지 간에 매우 중요하게 느껴진다. 環境과 人間간의 관계에 관심을 들 때, Rappaport(1979 : 97)는 환경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의 生態界(Ecosystem)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두가지 종류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認知的 모델(cognized model)로서 연구하려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과 믿음들에 관한 記述이고, 두번째의 作動的 모델(operational model)은 生態學이라는 객관적 과학의 입장에서 인간과 그들의 활동을 포함하는 生態界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두가지 모델에 대

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人類學者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나 民族誌를 작성할 때 原住民의 觀點(emic)으로 기술하느냐와 觀察者로서의 외부인의 觀點(etic)으로 기술하느냐의 차이점으로(Harris, 1976) 해석할 수 있다. 즉 認知的 모델은 emic 이고, 作動的 모델은 etic인 것이다.

認知的 환경은 주민들 자신의 의미있는 범주로 정돈된 現象들이기 때문에 인지된 환경과 실제의 환경은 같은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요소간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면에서 매우 다르다 하겠다(Rappaport, 1963). 따라서 認知的 모델에 관한 중요한 질문은 分析者가 實體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어진 生態界와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 얼마나 적절하게 행동하느냐에 있다(Rappaport, 1979: 98). 즉 認知的 모델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기준은 정확성이 아니라 적응력에 관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환경과 인간간의 관계를 볼 때 우리는 구체적인 인간행위의 적응성 뿐만 아니라 행위를 지배하는 理念(ideology)의 적응성을 분석할 수 있다.

섬에는 독특한 閉鎖性, 防衛性이 있지만, 한편 바다의 連結力에 대응하여 의외의 開放性도 있다는 점(姜景璿, 1979)은 제주도 사람들의 인지된 환경 속에서 이들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구조화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바다에 의한 外部世界와의 연결은 제주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意味化(signification)는 특정한 社會的·歷史的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Thompson, 1983: 214)고 볼 때, 島嶼性에 포함되는 開放性이 이들 도서주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파악하려면 濟州島와 이들 주민들의 일차적인 外部世界인 陸地(韓半島)와의 交流史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歷史的 環境에 대해서 梁重海(1979)는 “耽羅가 韓半島와의 교류를 시작하면서 부터 韓半島의 국제정세의 파도는 이 작은 섬나라에 늘 큰 영향을 주어 왔으며, 한반도와의 연속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적으로 늘

억압되고 被奪되는 苛斂誅求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고 서술하고, 특히 이조시대에는 지리적으로 絶海孤島였다는 점에서 많은 선비들의 정치적 유배지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였다.

결국 인간존재의 空間的·時間的 요소는 風土性·歷史性으로 표현될 수 있는 데, 風土性의 구체성은 場所이며, 歷史性은 사회적 존재의 구조인 것이다(姜景堉, 1979). 場所로서의 濟州島는 섬이라는 사실의 외척박한 토양과 기후조건이 제주의 生活方式를 설명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여 왔다(玄容駿, 1975; 宋成大, 1984 등).

島嶼環境에 대한 주민들의 관점을 찾으려는 認知人類學的·民族科學的 接近은 섬이라는 요인이 주민들의 지적활동 혹은 認知構造를 어떻게 조직하는가와 그러한 지적활동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표현되어 나타나는가(Thompson, 1983: 212)를 밝히려는 것이다. 따라서 바다에 의한 고립과 한정된 영토에 의해 갖게 되는 閉鎖性 및 防衛性과 바다의 연결력에 대응하는 생존방식으로서의 開放性이라는 島嶼環境에 대한 認知的 측면이 어떻게 구조화 되어 행위를 지배하는 社會文化的 理念(Socio-cultural ideology)을 형성하는가가 중요한 질문이라 하겠다. 이에 덧붙여 이러한 理念이나 氣風이 주민들로 하여금 도서환경에 대한 적응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III. 濟州島 사람의 生活世界

1. 濟州文化의 氣風: 陸地/濟州의 二分法的 카테고리

Kaska 인더언을 연구한 Honigmann(1978: 310)에 의하면, 氣風(ethos)은 감정이 담겨있고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주된 動機(dominant motivations)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나 事物에서 느껴지는 質的인 특징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간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의미적으로 엮어진 生活世界는 外部人에게 文化의 氣風으로 감지된

다. 한 사회에 들어간 외부인이 그 사회의 성원들과의 만남에서 받는 첫 인상은 종종 그 사회의 기풍을 느끼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氣風은 사회성원의 입장에서 외부세계를 바라보는 世界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부인을 대하는 방식의 주된 동기는 그 文化의 氣風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항상 나에게 던져진 질문과 나의 답변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관한 民族誌的 資料(事例 1)는 그들의 생활세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출발이 된다 하겠다. 이러한 방법은 人類學의 오랜 전통인 個人的인 接近方法(personal approach)이 되는 셈이다(Honigmann, 1978). 個人的인 接近은 객관적인 접근(objective approach)과는 달리 조사자의 개인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 事例 1 >

고향이 어덯니까?

제주도가 아니군요.

위에 든 出身에 관한 사례는 出生地가 韓國文化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제주문화를 한국문화의 下位文化로 보아야 한다는 筆者의 입장을 굳게하는 예가 되지만, 出生地가 本島이나 陸地部이나의 二分法的 카테고리는 濟州人의 生活世界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즉 外部人이나 原住民이나에 따라 그 사람을 자기의 경험적 생활세계 속에서 달리 인식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실체는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典型的 틀(typificatory schemes)을 가지고 있어, 社會構造를 이러한 틀과 그에 기초한 상호작용의 반복된 類型的의 總體로 볼 수 있는 것이다(Berger & Luckmann, 1966 : 32). 이때 社會構造의 어떤 요소가 典型化的 現저한 認知的 요소가 되는 것이다. 美國大學內의 韓國學生會에 대한 筆者의 調査(Yoo, 1982a, 1982b)에서도 필자가 관찰한

그 집단의 기본적인 社會構造가 일상생활에서의 구성원간의 典型化와 그에 따른 행위 및 감정에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外部人과 原住民의 구분은 제주문화 뿐만 아니라 향토 혹은 民俗文化 (folk culture)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한된 자원에 대한 이미지 (image of limited good; Foster, 1965)가 바탕이 된 '우리'라는 의식과 '自文化中心主義'의 한 표현으로 (金漢九, 1982: 8, Brandt, 1971: 75)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陸地 (韓半島)와 濟州島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歷史的 사실들을 바탕으로 제주사람들이 陸地部에 대해 갖고 있는 공통된 감정 및 생각과 결부되어 外部人과 原住民의 구분은 그들의 生活世界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즉 筆者가 外部人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제주도가 아니군요'하고 否定文으로 확인을 하였다는 것은 질문한 사람의 감정이 충분히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事例 1>의 對話가 이루어진 상황은 주로 學校社會였다. 따라서 학교사회에도 農民社會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자원에 대한 認知指向 (cognitive orientation)이 지배적이라는 Fitchen(1982)의 美國大學에 대한 조사보고를 고려할 때, 이러한 陸地/濟州의 구분이 학교사회에 국한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직하다. 그러나 교향을 묻는 질문을 제한된 자원에 대한 反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앞서 학교사회의 구성원들이 本島 出身과 陸地 出身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外部人들의 생활이 제주도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事例 1>을 새로운 轉入者의 경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판단기준을 출생지로 하였다는 사실로 정리해 보면, 그러한 판단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경우에도나 필요한 것이므로 학교사회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또한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진 對話들을 보면 陸地/濟州의 典型化가 학교사회에서만 해당되는 구분이 아니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事例 2〉

육지사람은 육지사람끼리 통하지 않소?

〈事例 3〉

이유는 모르겠지만 육지사람은 괜히 거리감이 든다.

〈事例 4〉

옛날에는 육지사람을 저 밑으로 봤었죠. 그러나 요즘은 육지사람 쪽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事例 5〉

A : 나도 사진 좀 찍어주소! 난 사람 아니요?

B : 그러지마라, 신혼여행 온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 심어준다.

〈事例 2〉는 내가 육지출신이며 안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아는 동료 가 자기는 濟州島 사람이지만 아내는 육지 출신이기 때문에 집사람끼리 소개시켜 주자고 하면서 나한테 반문한 말이다. 이것은 육지사람들이 공통적으로 認知한 環境으로서의 섬은 우선 답답하고 좁은 지역이며 육지와의 왕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적으로 비행기를 타면 서울까지 한 시간의 거리이지만 소요시간보다는 섬이라는 사실이 육지사람들에게도 제주에서의 생활에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러나 육지 출신의 外部人이 느끼는 島嶼環境과 제주도 사람들에 의해 認知된 島嶼環境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끼리끼리’의 동류의식을 갖고 있다고 제주도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생활세계가 다르다는 것이 육지

사람과 제주사람의 구분을 뚜렷이 한다 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이다. 外部人의 적응을 이런 점에서 살펴볼 때, 나의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바다를 볼 때 내가 있는 곳은 육지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답답함이 줄어들 수 있었다. 즉 나의 그동안의 경험적 생활세계 속에서 새로운 것, 다시 말하면 섬에 있다는 사실을 해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사람들이 제주도를 제외한 韓國社會를 ‘陸地’로 표현하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이는 나의 개인적인 경우, 내가 떠나는 곳을 가리킬 때 어떠한 말로 표현해야 하나 고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는 서울도 육지로서의 意味를 갖고 있는 것이다.

陸地/濟州의 구분은 Rosch(1977)가 말하는 카테고리화의 두 원리 중에서 두번째에 해당되는 것이다. 첫번째 원리는 각각의 정보에 대해 가능하면 각각 분류하는 것이고, 두번째 원리는 認知的 부담(cognitive load)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가장 적은 분류를 시도하는 것이다(Rosch, 1977: 213). Nelson(1973)의 연구나 Quinn(1976)의 연구도 먼저 구분의 범위나 원리를 정한 다음 카테고리화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사람들의 생각은 本島와 나머지 지역으로 韓國社會를 구분하고, 섬이라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생활세계를 바탕으로 나머지 지역을 陸地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陸地’는 모든 陸地가 아니고, 濟州道의 生活에 영향주는 韓半島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石宙明의 「濟州島 隨筆」(1968: 120)의 韓半島라는 項目에서도 “濟州人是 半島를 陸地라 하고 半島人을 陸地人이라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事例3〉과 〈事例4〉는 〈事例2〉와는 달리 육지사람에 대한 느낌을 내가 질문했을 때 각각 다른 제주사람의 답변 내용이었다. 陸地/濟州의 認知的 구분의 중요성과 이들 육지사람들이 제주도내 少數集團(minority group)으로서 제주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趙文富外, 1979: 10), 그들에 대한 감정, 태도가 어떤 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또한 그 이유를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더욱 더 육지사람들에 대한 態度는 이미 제주사람의 생활세계 속에서 제주문화의 氣風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풍의 바탕인 外部人을 대하는 방식의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주된 동기는 島嶼性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事例 3 >의 ‘거리감’은 < 事例 2 >의 ‘끼리끼리’와 같은 내용이며, < 事例 4 >는 육지사람과 제주사람의 만남의 양상이 시대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제주도의 생활세계에 ‘육지’의 영향이 점점 더 증대됨을 말해주고 있다. < 事例 4 >에서의 ‘옛날’은 20代의 정보제공자가 말하기를 부모세대 또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가리킨다는 것이며, ‘저 밑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한 社會調查(趙文富外, 1979)에서 主觀的 社會階層構造가 本島民에 비하여 육지 출신들은 中流層이 적고 下流 및 극빈층이 많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뒤에서 서술할 제주사람들의 島嶼性에 대한 認知的 측면에서의 적응방식의 하나로 육지사람을 더 낮게 評價했다고 보여진다. 1948年의 石宙明(1968: 102)의 調査에서도 濟州島民의 特性의 하나로 ‘過去로부터 陸地人이라면 乞人 쯤으로 생각하여 都大體 相對를 잘 하지 않음’을 들고 있다. 또한 그의 책 中 盜賊이라는 項目에서 “自作自給되는 섬이니만큼 別로 없었고 若干이 있다면 普通 「육짓눔」이란 옛장사들의 작난이었다고 한다”(1968: 188)고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島內에서 잘못된 것은 보통 육지사람들의 행동으로 제주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는 오히려 육지사람 쪽에서 거리감을 느낀다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제주사람과 육지사람이 만나는 상황이 바뀌어 가고 따라서 島嶼性에 대한 적응방식도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육지’의 영향이 그들의 생활세계에서 더욱 커졌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 事例 5 >는 20代 후반 남자 대학생들 끼리의 對話인데, 어느 토속

주점에서 운전기사가 신혼부부를 위해 사진을 여러 장 찍어주자 이에 대한 그들의 反應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民族誌的 資料가 筆者와의 일상적인 對話이거나, 어느 정도 감춰진 調查者와의 面接內容인데 비해 하나의 자연적인 事件이라는 점에서 文化의 氣風을 찾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事例 1>부터 <事例 4>까지의 ‘육지사람’은 주로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비해 <事例 5>는 육지에 살고 있는 육지사람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實例라는 점에서 陸地 / 濟州의 구분을 보다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즉 島嶼性이 갖고 있는 閉鎖性 혹은 防衛性과 開放性의 상호모순된 관계의 역사적 진행 속에서 육지사람에 대한 제주사람의 감정과 현실사이에 대한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난 사람 아니요’는 매우 강한 표현인데, 제주도를 관광지로만 인식할 수 있는 육지사람들에 대한, 제주도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제주사람의 감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두번째 사람의 이야기에서 감정을 표현한 對象이 제주도를 잠시 들린 外部人으로서의 여행자(Greenblat & Gagnon, 1983)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면, 육지사람들이 이제 여행자로서 제주도를 자주 찾고 있다는 사실에서 육지사람과 제주사람간의 만남의 새로운 양상이 제주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육지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까지의 民族誌的 資料를 종합해 볼 때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제주사람들의 生活世界는 濟州 / 陸地의 구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分的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주된 동기는 島嶼性이 갖는 社會的·歷史的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분에 따른 행위양식은 사회적 상황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표현됨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육지출신의 주변인(marginal man)으로서의 筆者에게는 더욱 제주문화의 기풍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金漢九(1982)의 남제주의 한 농촌사회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그는 農民社會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農本主義 및 그에 따른 自文化中心主義와 韓國文化의 氣風이라 할 수 있는 家族主義(familism)가 그들의 傳統的 生活世界에서 文化의 氣風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 그는 남제주의 한 農村社會를 향토문화(folk culture)로 보고, 다른 사회의 향토문화와의 比較方法을 시도하였다. 韓國文化와의 비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전통적 생활세계'는 韓國文化의 전통적 생활세계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研究에서는 조사된 農村이 島嶼環境이라는 데두리 속의 農村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아 島嶼性에 따른 제주문화의 기풍을 발견하지 못했다. 즉 제주문화의 特殊性은 서술하지 않고 있다. 물론 外部人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타성을 서술하고 있지만(金漢九, 1982: 8), 이때의 '外部人'은 部落住民이 아닌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 '육지사람'의 意味는 아닌 것이다.

2. 島嶼性에 대한 認知的 측면에서의 適應

環境에 대한 認知的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과 자신들의 삶을 위해 얼마나 적절하게 행동하느냐 즉 適應性的의 문제다.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인간행위의 적응성과 그 행위를 지배하는 社會文化的 理念(socio-cultural ideology)의 적응성을 분석할 수 있는 데, 여기서는 島嶼性을 바탕으로 한 理念 즉 제주문화의 氣風이 이들의 삶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주로 살펴보고 한다.

濟州에 온 관광객에 대한 反應(事例5)에서는 島嶼性이 갖는 상호 포섭된 이념이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물건을 구입하려 할 때 나타난 다음의 民族誌의 資料(事例6)를 보면 經濟生活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적응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事例6>

이제 그 잡지는 발간되지 않아요. /

그 회사는 망했다.

제주도는 생활용품의 많은 부분을 陸地部, 더욱 엄밀히 이야기해서 서울 지역에서 공급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어떤 월간지를 사려고 책방에 들렀더니 마침 그 잡지가 없었다. 이때 책방 주인(혹은 점원일지도 모른다)이 하는 말이 ‘이제 그 잡지는 발간되지 않아요’ 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답변은 한국사회에서 잡지 발간의 지속성이 잘 유지되지 못했다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궁이 가는 점도 있었다. 그후 한 달 뒤 같은 책방에 들렀더니 지난 달 사려고 했던 잡지도 진열되어 있었다. 이유를 물은 즉 그 잡지가 보통 때보다 열흘이나 늦게 도착했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야기는 한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커피 제품 중 한 제품을 구입하려 했을 때다. 그 제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아 언제쯤 도착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회사는 망했다’ 라는 것이다. 점원이 가게에 있는 제품과 손님이 찾는 제품이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대답했는지, 자기 가게에 없는 상품에 대해 갖는 그의 생각인지 구별할 수는 없었다.

위의 두가지 이야기는 안사람이 나한테 전해준 것인데, 전하면서 서두로 꺼낸 말이 ‘제주도 사람은 참 이상하다’ 라는 것이다. 앞서 나의 제주도 생활에 대한 적응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적 경험에 대해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서울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의 새로운 일을 그동안의 生活世界에서 바라볼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모양이었다. 일상생활은 사람들에게 의해 해석된 主觀的으로 의미있는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예가 된다.

그러나 <事例 6>에서 중요한 사실을 情報가 부족하거나 제한되었다는 점이나 물량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의 발견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였나’ 라는 점이다. 물자의 수급계획에 차

질이 생겼을 때, 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고객에게 認識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없는 물건은 陸地에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물론 제주사람이거나 육지사람이거나 간에 고객들도 여기가 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섬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킬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지만, ‘섬에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 될 때마다 그같은 생각을 무마하려는 점원이나 대부분이 제주사람인 고객의 방식으로 생각되어진다. 石宙明의 1948년의 濟州島民의 特性에 관한 조사에서도 앞서 말한 육지사람에 대한 그들의 태도 이외에 島民의 自尊心을 설명하고 있는데 ‘自己네의 水準이 韓國의 어느 곳보다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1968: 102) 이러한 적응방식이 제주사람의 生活世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筆者가 제주문화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밝힌 글(庾喆仁, 1984)을 읽고, 제주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 그 내용과 관련지어 내게 해준 이야기(事例 7)는 제주사람의 生活世界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島嶼環境이 갖는 제약점과 생존에 필요한 開放性의 상황 속에서 제주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여 왔는가를 보여준다.

< 事例 7 >

부모세대들은 제주도라는 한계를 짓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수는 없죠. 그렇지만 의식은 ‘제주여 영원하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인정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든지, 제주도를 떠나야 합니다.

위의 이야기는 사회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져야 하

는 自己文化에 대한 推論(cultural inferences)인 것이다(Schwartz 1978 : 433). 이것은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民族誌로 볼 수 있고 따라서 内部人的 觀點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 事例 7 >과 관련하여 다음의 耽羅精神에 대한 研究結果를 보면 학생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認知的 측면에서의 島嶼性에 대한 적응방식은 이미 제주사회에서 하나의 일반인들의 지혜(folk wisdom)로 볼 수 있다.

傳來的 濟州民의 平均的 民衆意識을 ‘自彊’이나 ‘不敗’의 精神이라고 일차 縮約한다 하더라도, …… ‘不敗’는 일단의 ‘敗北’를 바다에 깔고(제주도 特有的 地理·歷史的 惡條件) 그 바탕 위에 確乎히 構築되었는가 하면, ‘自彊’ 또한 地瘠과 民貧의 痛憤과 눈물·被壓이 얼룩진 위에서 生成된 信念이요 意志요 信仰인 것이다(玄平孝外 1979 : 23)

결국 島嶼性에 대한 적응은 제주사람들이 精神을 강조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다.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은 < 事例 6 >에서 여기 없는 물건은 육지에도 없다는 표현과 같은 내용인 것이다. 한세에 대한 인식은 제주도의 ‘설문대할망’ 傳說에서 ‘육지까지 다리를 놓았으면’ 하는 것은 外部志向의 意志이며, 다리 놓기가 실패하는 것은 現實肯定的 心性(玄容駿, 1979)이라는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한계를 짓고 살되 島嶼環境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현실을 바탕으로 생성된 제주의 精神을 자주 상기하여 행동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지배적인 社會文化的 理念은 島嶼環境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精神的 자세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은 陸地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따라서 陸地/濟州의 구분에 따른 陸地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生活世界가 바뀌어 가면서 氣風

의 변모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한 방향은 陸地/濟州의 구분이 점차 의 미없는 것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육지사람들에 의한 제주도의 ‘침입’을 우려하여 <事例 3>의 정보제공자는 ‘이러다가는 제주도가 육지사람들의 땅이 되어 제주사람들은 다 쫓겨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고립과 한정된 영토에서 오는 폐쇄성(한계)과 바다로 향한 개방성의 공존인 島嶼性은 제주에서 理想文化(ideal culture)와 實在文化(real culture)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陸地로부터의 文化傳播의 결과, 外部世界로 표현되는 陸地文化 혹은 유교문화에 대한 선망의식은 家族構造, 男女關係, 民間信仰 등에 나타나며(玄容駿, 1979; 趙惠貞, 1982), 육지와 구별되는 이들 분야의 현실적인 類型과 物質文化는 島嶼環境에 대한 行爲의 적응과정이라 하겠다(宋成大, 1984). 島嶼性에서 비롯되는 陸地/濟州의 구분에 따른 배타성과 儒敎文化가 제주문화를 특징지워주는 가치체계 즉 文化的 氣風인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는 이율배반적일 때가 많아 제주사람들의 적응방식을 理念과 실제의 行爲의 두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儒敎文化에 대한 理念과 실제의 島嶼環境에 대한 適應으로서의 行爲 간의 차이는 결국 고립과 교류를 동시에 수반하는 島嶼性에 대한 認知的 측면에서의 적응인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로 나타나는 것이다.

IV. 맺는말 : 陸地와 濟州의 만남

제주사람들에게 ‘陸地文化’로 인식된 韓國文化 또는 儒敎文化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실제의 제주문화는 특수한 문화적 유형을 보인다는 사실은 下位文化로서의 제주문화의 특수성이 島嶼性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 文化體系의 지배적인 감정, 태도 및 價値體系가 외부인인 調査者에게는 氣風으로 感知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筆者의 生活世界를 구성하는 韓國文化의 틀에서 바라보는 濟州文化의 特殊性的 認知的 바탕, 즉 認知된 環境에 대한 適應은 下位文化로서의 濟州文化 氣風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하나의 文化體系에서 살고 있는 内部人的 觀點에서는 지배적인 價值體系가 外部世界를 바라보는 世界觀이라 할 때, 제주사람들은 ‘陸地文化’가 곧 그들에게 의미있는 外部世界로 받아들여져 陸地文化에 대한 선망의식은 바로 제주사람들의 세계관으로서 그들의 生活世界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제주문화의 지배적인 價值體系의 認知的 바탕인 陸地/濟州의 二分法的인 카테고리에서 발견되는 ‘對照(contrast sets)’는 民族科學者(etnoscience)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Price-Williams, 1978 : 599). 이러한 대조는 더 나아가 島嶼性에 공존하는 폐쇄성과 개방성의 모순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라는 문제가 島嶼環境에 대한 적응, 곧 認知的 모델의 핵심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韓國文化에서 出身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에 따른 育지문화와 제주문화의 認知的 차이는 認知過程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Cole et al. 1971 : 233).

陸地와의 교류나 제주도내의 育지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적으로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섬이라는 環境이 가져다 주는 閉鎖性과 開放性的의 兩極的 矛盾의 受容은 韓國文化에서 나타나는 文化的 符號(cultural code)로서의 兩極的 矛盾의 受容과 마찬가지로 오직 狀況에 따른 進行(process)만이 있을 뿐이다(姜信杓, 1983 : 632). 이러한 진행은 곧 일상생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상생활에서 부터 추론되는 제주문화적 지식은 그들의 生活世界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民族誌의 자료에 나타난 제주사람의 生活世界에서 발견되는 矛盾의 受容이라는 適應方式은 제주문화를 연구하는 제주사람들이 精神的인 면을 특히 강조한다는 사실로도 나타난다(玄平孝外, 1979). 育지와 제주간의 관계와 제주도의 自然環境이라는 島嶼環境의 현실을 바탕

으로 생성된 濟州의 精神에 대한 강조는 〈事例 7〉에서 보듯이 제주 사람들의 環境適應에 대한 通俗의인 지혜(folk wisdom)가 되었다.

島嶼環境에 대한 적응 이외에도 島嶼性이 갖는 外部와의 연결을 보여주는 歷史的 事件에 대한 경험과 이에 대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 제주사람들의 生活世界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제주 문화의 특수성, 즉 제주사람의 생활세계는 環境과 歷史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때 바르게 밝혀질 것이다. 生活世界에서의 歷史性의 의미는 外部人과 内部人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그동안의 歷史 특히 최근세사에 해당되는 몇가지 사건(예를 들면, 李在守亂과 4·3事件)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관심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筆者의 기본적인 시각은 사건 그 자체 보다는 그러한 사건이 현재의 생활세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있다(Goodwin 1982 參照). 예를들면 만 5년에 걸쳐서 濟州島에서 일어났던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에 의한 동족상잔의 비극인 4·3事件은 40세 이상의 제주인이면 누구나 뼈아프고 쓰라린 상처로 기억하고 있지만 한 社會調查(趙文富外, 1979:208)에서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비율은 이상하게도 ……매우 낮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4·3事件 자체에 대한 거론은 하나의 禁忌(Taboo)로 여기고 있어 현재의 제주사람들의 生活世界에 이 사건이 반영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4·3事件에 대한 관심과 禁忌라는 모순의 원인도 앞으로 밝혀져야 하겠다.

결국 육지와 육지사람에 대한 生活世界에 나타난 제주사람의 관점에서 Spradley (1972)가 지적한 下位文化의 해석자로서의 제주사람은 ‘(1) 濟州島를 아름다운 관광지로만 인식하는 육지사람은 제주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2) 제주도 문화는 특수한 것이다’라고 육지사람인 調查者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특수성만의 강조는 筆者의 美國大學 수학시절의 레포트 내용에서 韓國文化的이라고 서술한 상당한 부분이 文化의 보편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濟州文化研究는 環境이 가져다 주는 島嶼性和 歷史性的 意味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한가지 調査方法만으로는 認知的 측면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本論文이 시도한 일상생활에서의 ‘적절한 例示 (apt illustration; Gluckman, 1961 : 7)’를 넘어서는 事例研究의 方法들을 동원할 때, 보다 濟州文化의 韓國文化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하겠다.

< 參考文獻 >

姜景禧

1979 “風土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濟州大學 耽羅研究所 주최 耽羅精神探究 세미나 發表論文.

姜信杓

1983 “韓國의 社會와 文化에 대한 理論과 方法의 人學的 探索,” 「韓國社會의 傳統과 變化」, 서울大學校 社會學研究會 編, 汎文社.

金俊希

1984 “감귤재배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변화: 제주도 위미리의 사례, 「人類學論集」 7 : 106-151.

金漢九

1981 “기풍(Ethos)에 대한 사회인류학적 시론,” 「韓國社會學」 제 15집.

1982 “傳統的 生活世界와 集團生活,” 「傳統的 生活樣式的 研究 (中)」,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石宙明

1968 「濟州島 隨筆」, 寶晉齋.

宋成大

- 1984 “제주문화의 재조명：三無精神을 中心으로，” 「濟大新報」9月15日字.

梁重海

- 1979 “文化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濟州大學 耽羅研究所 주최 耽羅精神探究 세미나 發表論文.

庾喆仁

- 1984 “제주문화의 재조명：人類學的 接近，” 「濟大新報」10月2日字.

李光奎

- 1984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社會學的 側面，” 「耽羅文化」3：61-76，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李起旭

- 1984 “島嶼文化的 生態學的 研究：濟州島 隣近 K島를 중심으로，” 「人類學論集」7：1-56，서울大學校 人類學研究會.

趙文富 外 4人

- 1979 「濟州道民의 意識構造 調查研究」，濟州道.

趙惠貞

- 1982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한상복 編，심설당.

崔在錫

- 1979 「濟州島의 親族組織」，일지사.

玄容駿

- 1975 “濟州島의 基層文化，” 「文化人類學」제7집.

- 1979 “民俗을 통해서 본 耽羅精神，” 濟州大學 耽羅研究所 주최 耽羅精神探究 세미나 發表論文.

玄平孝 外 7人

- 1979 “耽羅精神 探究,” 「논문집」 제 11 집(인문·사회과학 편),
濟州大學.
- Berger, Peter L. & Thomas Luckmann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Garden City:
Doubleday & Co., Inc.
- Brandt, Vincent S.R.
1971 *A Korean Vill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 Michael
1978 Ethnographic Psychology of Cognition —so far, *The
Making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George D.
Spindler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le, Michael et al.
1971 *The Cultural Context of Learning and Thinking*,
New York: Basic Books.
- Dougherty, Janet W.D. & J.W. Fernandez
1981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Symbolism and cogni-
tion, *American Ethnologist* 8: 413-421.
1982 Afterword in special issue: Symbolism and cognition
II, *American Ethnologist* 9: 820-832.
- Fitchen, Janet M.
1982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image of limited
good, paper presented at the 81st Annual Meeting
of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Washing-
ton D.C.
- Fosberg, F.R. (ed)
1963 *Man's Place in the Island Ecosystem*, Honolulu:
Bishop Museum Press.

Foster, G.M.

- 1965 Peasant society and the image of limited good, *American Anthropologist* 67: 293-309.

Frake, Charles O.

- 1977 Plying flames can be dangerous: Some reflections on methodology in cognitive anthropology, *Quarterly Newsletter of the Institute for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1:1-7.

- 1980 Author's Postscript, *Language and Cultural Description: Essays by Charles O. Frake* (Selected and introduced by Anwar S. Dil),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Goodwin, M.H.

- 1982 "Instigating" : Storytelling as a social process, *American Ethnologist* 9:799-819.

Greenblat, Cathy Stein & John H. Gagnon

- 1983 Temporary strangers: Travel and tourism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Sociological Perspectives* 26:89-110.

Harris, Marvin

- 1976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emic/etic distinc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5:329-350.

Honigmann, John J.

- 1978 The personal approach in culture and personality research, *The Making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George D. Spindler ed.).

Mitchell, J. Clyde

- 1983 Case and situation analysis, *The Sociological Review* 31(2):187-211.

Nelson, Katherine

- 1973 Some evidence for the cognitive primacy of categorization and its functional basis, *Merrill-Palmer Quarterl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19:21-39.

Price-Williams, Douglass

- 1978 Cognition: Anthropological and psychological nexus, *The Making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George D. Spindler ed.)

Quinn, Naomi

- 1976 A natural system used in Mfantse litigation settlement, *American Ethnologist* 3: 331-351.
- 1982 "Commitment" in American marriage: A cultural analysis, *American Ethnologist* 9:775-798.

Rappaport, Roy A.

- 1963 Aspects of man's influence on island ecosystems: Alteration and control, *Man's Place in the Island Ecosystem* (F.R. Fosberg ed.).
- 1979 *Ecology, Meaning, and Religion*, Richmond: North Atlantic Books.

Rosch, Eleanor

- 1977 Classification of real-world objects: Origins and representations in cognition, *Thinking: Readings in Cognitive Science* (P.N. Johnson-Laird & P.C. Wason 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wartz, Theodore

- 1978 Where is the culture? Personality as the distributive locus of culture, *The Making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George D. Spindler ed.).

Spradley, James P.

1972 Adaptive strategies of urban nomads, *Culture and Cognition: Rules, Maps, and Plans* (J.P. Spradley ed.),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Co.

Thompson, John B.

1983 Ideology and the analysis of discourse: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work of Michel Pêcheux, *The Sociological Review* 31(2): 212-236.

Yoo, Chul-In

1982a Cognitive domains in the identification of the person, unpublished manuscript.

1982b Talking about voting act: Cultural knowledge and everyday inference, unpublished manuscript.